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연극/뮤지컬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12일(금) 13:00~17: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9일(금)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광보, 김일송, 박병성, 손신형, 정달영, 황진수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창작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에는 총 29건이 접수되었고, 결격 대상 없이 심의 대상은 29건(전년도 대비 약 2배 증가)이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3,716백만 원, 배정예산은 593백만 원이었습니다.

심의는 내부 전담심의관을 포함해 연출, 기획, 비평, 교육 등 다양한 연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맡았습니다. 각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 진행 전 약 2주 동안 서류 검토를 진행하였고 1차 서류심의를 통해 2차 인터뷰 대상자를 최종 선정 사업의 약 1.5배수 정도인 10개 단체로 추렸습니다. 이후 2차 인터뷰 심의는 단체별로 15분 동안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전 단체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최종 지원 대상을 6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는 신청 사업의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정해진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 사업의 규모와 내용, 타 사업의 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며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 신청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필수요건인 3건의 공동기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공연예술계 전반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극장의 안전관리 현황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의 거점으로서 '공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창작 및 기획 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사업이 공간과 공동기획에 참여하는 단체 및 예술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창작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통해 단체와 공간의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 성과를 참고해, 지원 시 업계 전반에 의미 있는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선정된 단체들의 지원신청 금액을 모두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최고액을 신청한 단체가 다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단체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 사업은 신청 금액 대비 조정된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에 비해 지원금 신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감액 폭이 크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산은 부득이하게 조정되었으나, 본 사업의 필수 이행조건인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공연예술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 사업들입니다. 선정된 단체들에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창작공간을 활성화하고, 공동기획에 참여하는 단체와 예술가들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공연예술 창작의 거점으로서 우수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